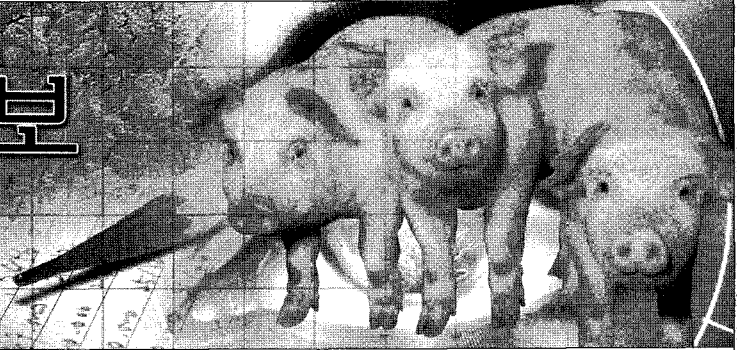


축산정보



올해 사육두수는 줄고, 돈가는 강세

- 농경연, 「농업전망 2005」 발표대회에서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지난 1월 28일(금)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 그랜드볼룸에서 '한국농업의 도전과 비전'이란 주제로 「농업전망 2005」발표대회를 가졌다.

이날 KREI는 2005년은 지난해에 이어 돼지고기 소비촉진 활동이 전개될 경우, 돼지고기 소비가 1인당 17.5kg 수준으로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돼지 가격 또한 전년비 2.9% 상승한 24만1천원으로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사육두수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여름 폭염으로 인한 모돈 감소, 약취방지법 등 규제강화 등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116page 참조>

검역원, 제주 돈열 항체검출 원인 '혈장단백·혈분'

- 제주 돈열 항체검출 역학조사 중간 결과 발표

2004년 하반기 중돈장 위생 점검시 제주도에서 발생한 돈열 항체

양성반응이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백신주(LOM주)'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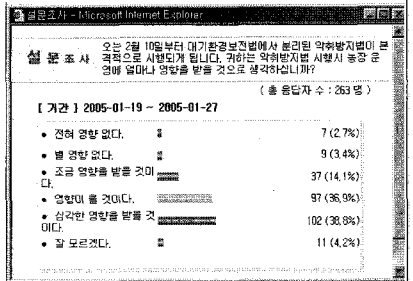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2월 5일(토)돈열 항체검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양돈단체 및 학계 등 관계관을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검역원은 "제주도에서 검출되는 돈열 바이러스에 대한 분석 결과 야외 바이러스 또는 변이 바이러스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백신주(LOM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고 있음)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으며, "이러한 결과는 현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육지에서 백신바이러스주가 어떠한 형태로든 제주도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유입은 오염된 혈장단백 또는 혈분을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약취방지법 시행에 양돈농가 '고심'

- 양돈농가 90%가 '영향받을 것' 응답
- 약취방지법 관련 소위원회 구성

약취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2월 7일 공포됨에 따라 지난 2월 10일부터 약취방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양돈농가들은 약취방



지법이 농장 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협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약취방지법 시행에 따른 농장 운영에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약취방지법이 농장 운영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약취방지법 시행에 따른 양돈농가의 고심이 뚜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 263명의 응답자 중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한 농가가 38.8%(102명), '영향이 클 것이다'라고 응답한 농가가 36.9%(97명)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조금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4.1%를 차지해, 설문 참여농가중 90%가 영향을 받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우리 협회는 지난 1월 19일 제1차 축산환경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취방지법 시행에 따른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약취방

지법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양돈용 배합사료 생산량 '퓨리 나코리아' 1위

- (주)CJ 2위, 대한제당(주) 3위 나란히 유지

농림부에서 집계한 2004년도 배합사료 업체별 생산량 순위에 따르면 지난해 양돈용 배합사료는 2003년과 같이 '퓨리나코리아'가 업계 1위를 차지했다. '퓨리나코리아'는 양돈사료 총 56만1천237톤을 생산해 지난해 59만2천929톤보다는 5.3% 감소했다.

이어 (주)CJ는 44만5천769톤의 양돈사료를 생산해 2003년에 이어 2위를 유지했으며, 대한제당(주) 또한 31만8천412톤의 양돈사료를 생산해 3위를 차지했다. 한편 양돈용 배합사료는 전년대비 4.69% 감소한 539만7천931톤을 기록했다.

2004년도 배합사료 총 생산량은 1천472만6천72톤으로 전년대비 3.48% 감소했으며, 농협은 전년대비 24.78% 증가한 431만2천214톤을 기록했다. 또한 일반 배합사료 제조업체는 총 1천41만3천858톤을 생산해 전년대비 8.86% 감소했다.

해양수산부, 해양오염 방지법 개정 추진

- 우리 협회, 해양배출 허용기준 관련 의견 제출

해양수산부가 추진중인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허용기준 강화에 앞서 관련 부처별로 축산농가에 대한

도드람양돈조합장에 진길부씨 당선

사외이사 포함 이사 11명 선임



진길부 도드람 양돈조합장(양돈 자조금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제4대 조합장으로 재선됐다.

지난 4일 대전 유성 흥인호텔에서 열린 2005년 도드람양돈조합 정기총회 제4대 조합장 경선 결과, 진 조합장이 재선됨으로 앞으로 4년간 조합을 이끌게 되었다.

도드람 조합은 또한 경기: 박

중희·손종서·안병철 총북/경북: 장 경우 충남: 이정학·구자원 전북: 이복형·국종길 전남: 이귀남·오재곤 사외이사: 황광연(고려대 응용동물학과 교수)씨 등 이사 10명과 사외이사 1명을 선출했다.

한편 진 조합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조합원의 화합과 통합에 적극 앞장서는 동시에 조합원의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26일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관한 국제협약인 '72련던협약의 '96의정서가 1~3년 이내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해양오염 방지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시점에서 배출해역의 오염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반면 해양배출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규제가 필요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 협회는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허용기준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농림부에 제출했다. 의견에는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시 물리적 또는 화학·생물학적 1차 처리 후 해양배출 해야한다'는 대책에 대해 1차 처리는 기간이 오래 걸려 해양배출 농가들이 접근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고액분리 처리

후 배출'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유예기간 설정과 관련해 기간을 3~5년으로 하되, 축산분뇨를 해양투기로 처리하는 농가는 고액분리기 등의 시설이 없는 농가가 과반수여서 농림부가 먼저 지원사업으로 설치를 완료한 후에 시행해야 하며, 그밖에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1차 처리를 위해 농가에 고액분리기 및 축분 저장탱크 등이 100% 지원될 수 있도록 농림사업 시행지침 중 지원량을 증액하고, FTA 대비 농업·농촌 종합대책 중 축산분뇨 관련 2조1천39억원을 조속히 시행해 양돈농가에 2중 설비 투자비용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농림부에 건의했다.

폐기물 해양배출 관련 홈페이지 : <http://www.oceandumping.re.kr>

농림부, '05년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계획(안) 마련

농림부가 2005년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계획(안)을 마련함에 따라 올해 가축방역이 한층 더 보강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가축방역과는 구제역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3~5월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동 대책의 일환으로 국경 검역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수입견초의 분변물 오염 검사를 확실히 하기 위해 탐지견을 올해 상반기 투입하고, 소독 방법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중국, 인도네시아 등 수출국과 수입위생조건을 개정 협의기로 하고 현행 포르말린 훈증 소독 방법을 열처리 소독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기내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소독 폐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밀수 축산물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전국일제소독의 날'과 함께 매주 수요일을 '가축질병예찰의 날'로 추가 지정해 예찰요원을 확충하고, 가축질병 신고전화(1588-4060)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장,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소독실태를 단속해 위반업체에 과태료(500만원 이하) 처분을 하는 등 철저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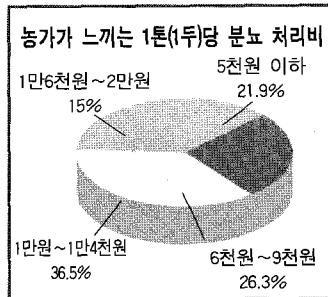
또한 농가의 방역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규정 위반 농가에 대한 제재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따라서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

령을 개정, 5월에 시행하기로 하고, 소독위반 농가에 대해 위반횟수별로 과태료를 처분하고 살처분보상금 차등지급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분뇨 처리 퇴·액비가 대부분

- 농협중앙회, '2004 양돈농가 분뇨 처리 현황조사' 결과 발표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가을부터 전국 124개소 지역축협을 중심으로 해당지역의 양돈농가의 분뇨처리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조사에는 12월 8일까지 98개 조합이 참여하고, 5천300여농가와 570만두가 조사되었다.



농협, 사료가격 평균 4% 인하

농협사료(사장 남경우)는 지난 1월 27일 사료가격을 평균 4% 인하했다.

농협사료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사료값을 10% 내린데 이어 이번에 양돈을 포함한 10개 축종 130여개 전 제품에 대해 평균 4% 추가 인하함으로써 최근 세 차례에 걸쳐 14%를 내렸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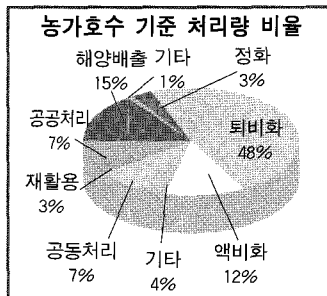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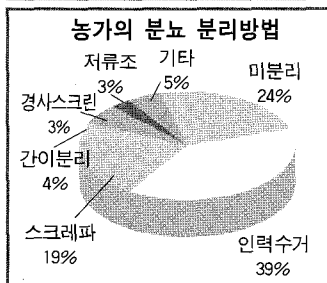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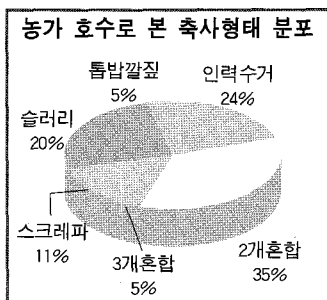
한편 농협사료는 환율과 국제곡물가격 변동에 따라 사료가격을 수시로 조정하는 '사료가격 연동제'를 도입, 축산농가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돼지고기 우수 브랜드 10개 인증업체 탄생

- 소시모, 돼지·한우 18개 우수 축산물브랜드 선정

지난 1월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발표회'에서 소비자가 선정한 돼지 10개, 한우 8개 우수브랜드가 발표됐다.

돼지부문에는 도드람양돈농협 도드람포크(대표 진길부), 진왕영농조합 동설맥포크(대표 이병모), (주)문경약돌돼지(대표 김상준), 소백산



숙돈영농조합법인 실라리안 소백산
 숙돈(대표 권영홍), 의성축협 의성
 마늘포크(대표 이상문), 부경양돈농
 협 포크밸리(대표 한영섭), 목우촌
 프로포크(대표 고윤홍), (주)선진 크
 린포크(대표 이범권), 대상농장(주)
 하이포크(대표 조광수), 탐라유통
 한라산도야지(대표 김세훈)가 우수
 브랜드로 선정됐다.

우수브랜드 선정은 소비자 단체
 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주관했다.〈자세한 내용은
 본지 109page 참조〉

올 1월 돈육 수입량 대폭 증가

- 전년 동월대비 227.6%

2005년 1월 돈육 수입국 중 미
 국, 벨기에, 칠레로부터의 돈육 수
 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가 발표한 축산물 수입검
 역통계 1월 하순 조사 자료에 따르
 면 올해 1월중 미국으로부터 3천
 109톤, 벨기에로부터 2천141톤, 칠
 레로부터 2천39톤이 각각 수입됐
 다. 따라서 미국과 칠레, 벨기에 등
 이 여전히 우리나라 주요 돈육 수
 입국으로서의 위치를 고수했다. 한
 편 프랑스는 칠레에 이어 2천31톤
 의 돈육을 우리나라로 수출했으며,
 1월중 돈육 수입량은 1만6천584톤
 에 달해 2004년 1월 5천62톤보다

227.6%의 큰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냉장 돈육은 1월 총 351톤
 이 수입됐으며, 냉동 돈육은 1만6
 천233톤이 수입됐다. 부위별로는
 삼겹살이 9천246톤으로 가장 많이
 수입됐으며, 갈비가 2천802톤, 목
 심이 2천277톤이 수입돼 뒤를 이
 었다. 또한 앞다리 1천551톤, 뒷다
 리 48톤, 등심 23톤, 기타 637톤
 이 수입됐다.

**농림부, 올해 축산 정책연구개
 발사업 과제 선정**

농림부는 최근 DDA협상 등 대
 외적인 상황에 대응하고, 농업·농
 촌 대책 추진에 따른 정책화를 위
 해 올해 추진할 2005년 정책연구
 개발사업 과제를 선정했다.

따라서 올해 농림부는 축산에
 대해서는 '축산자조금 사업평가 및
 분석 자조금 제도개선 방안 연구'
 와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 세
 부시행방안 연구' 등의 과제를 선
 정했으며, 아울러 '농장 또는 마을
 단위 가축 질병관리 등급제 연구',
 '사료유통구조 분석을 통한 양돈산
 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식육판매
 업 HACCP 적용을 위한 모델 개
 발' 등 과제를 선정해 정책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그밖에 '농업분야 조세제도 개

선방안 연구' 및 '농산물가공품 등
 의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방안 연
 구' 등을 올해 추진할 연구과제로
 선정했다.

농림부, 가축방역 개선방안 검토

- 시·도 및 관련단체 건의사항 수렴
 농림부는 지난 2월 2일 '가축방
 역 종합대책 추진상황 2차 점검회
 의'를 갖고 가축방역과 관련해
 시·도 및 관련단체의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이에 농림부는 PRRS 및 PED
 등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중 제2종
 전염병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우리
 협회의 건의에 대해 제2종 가축전
 염병 중 소결핵, 부루세라, 돼지오
 제스키병 등을 제외한 구체적인 방
 역실시요령이 없는 질병은 발생시
 가축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제
 1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규정에 준
 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2
 종 가축전염병의 효율적인 방역추
 진을 위해 발생시 각 질병별 이동
 제한 등 세부적인 방역조치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우리 협
 회에 회신했다.

또한 우리 협회는 구제역 등에
 대비해 수입산 조사료에 대한 검역
 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
 책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

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단위: 톤)
 2000년 3월부터 구제역
 발생 우려국 및 발생국산
 건초 수입시 소독을 실시
 하는 등 '조사료수입위생
 조건'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수입건초가 우리

〈표1〉 국별 돼지고기 수입현황

국 별	네덜란드	덴마크	멕시코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영 국
2005년 1월 중 수입량	1,136	1,396	251	3,109	2,141	69	605	21	99
국 별	오스트리아	칠레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계 (전년동월대비%)
2005년 1월 중 수입량	1,314	2,039	963	481	2,031	98	727	104	16,584 (327.6%)

나라에 도착시 검역원 및 식물검역소에서 합동으로 현물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주한중국대사관에 중국산 조사료에 대한 조사료수입위생조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당부하고, 수출국 소독시설에 대해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분변검색을 위한 검역탐지견을 양성해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검역원, 배합사료 제조용 동물용의약품 제한

사료내 혼합가능 동물용의약품의 종류가 25종으로 감축됨에 따라 사료내 혼합가능 동물용의약품으로부터 삭제 또는 제외된 품목은 국내 배합사료 제조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4일 배합사료 제조용 동물용의약품 등 사용기준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따라서 국내 배합사료 제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삭제된 품목은 옥시테트라사이클린염산염, 설파메타진, 설파디메톡신, 기타사마이신, 치오펩틴, 비코자마이신, 하이그로마이신B, 데스토마이신A, 나이스타틴, 에리스로마이신, 데콕퀴네이트, 염산로베니딘, 카바독스, 암프로리움, 에토파베이트, 설파퀴녹사린, 할로푸지논, 노시헵타이드, 나이카바진, 조렌, 메칠벤조퀴이트, 오르메토프림, 로니다졸, 모란텔시트레이트, 싸이로마진, 록사손, 세데카마이신, 이버멕틴, 에프르토타이신이다.

한편 안전성 문제로 2003년 2월 1일부터 국내제조 및 수입이 금지된 '니트로푸란제(니트로빈)'를 이번 고시에서 삭제했다.

'공익수의사제' 도입... 수의사 병역의무 대체 가능

수의사가 일정기간 동안 가축방역기관에 근무하면 병역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농림부 가축방역과에서 공익수의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림부는 오는 4월말까지 공익수의사법을 제정하고 병역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상반기까지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해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내년 5월말까지는 공익수의사를 현장에 배치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공익수의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국방부와 실무 협의를 거쳤다. 한편 지난 달 25일에는 공익수의사제도 신설과 관련해 병무청이 관련법을 제·개정안 검토결과를 통보했다.

남은 음식물 건조품 해외로 수출 길 열려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소장 윤상기)는 남은 음식물 직매립에 의한 수질오염 및 소각에 의한 유독가스 발생 등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연구로 '98년부터 남은 음식물의 가축 사료화 이용 연구를 수행한 결과 안전사료화 이용 기술을 확립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식량의 70%와 연간 소비되는 1천500만톤의 사료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축산연구소는 남은 음식물의 사료화 활용기술이 외화절감 및 환경오염 감소, 가축사료비 절감 등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남은 음식물은 영양가치가 풍부해 가축에게 훌륭한 영양자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제주도, '굴먹은 도새기' 브랜드 개발

제주도는 제주의 대표적인 산물인 감귤과 돼지를 이용해, 감귤을 먹인 돼지를 돼지고기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브랜드 명칭과 캐릭터 등을 개발했다.

제주도는 최근 감귤을 먹인 돼지고기 브랜드 명칭을 '굴먹은 도새기'로 정했으며, 제주대 산업디자인과 손영수 교수에게 의뢰해 이 브랜드의 캐릭터와 상징마크를 개발하고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했다.

1월 냉도체 1등급 출현율 소폭 상승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김경남)에 따르면 올해 1월 1만37두에 대한 돼지 냉도체 등급판정 결과 29.0%인 2천910두가 1등급을 받아 전월대비 1.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등급은 3.0%인

300두가 판정을 받아 전월대비 1.0% 감소했으며, 2등급과 3등급은 각각 59.6%(5천983두), 8.4%(844두)가 판정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5천122두에 대해 등급판정이 이뤄진 암태지 중 1.5%에 해당되는 75두가 1+등급을 받았으며, 23.4%에 해당되는 1천198두가 1등급을 받았다.

한편 4천881두에 대해 등급판정이 이뤄진 거세돈의 경우에는 1+등급이 4.6%(225두), 1등급이 35.1%(1천712두)로 나타났다.

암태지 경락가 상승세 지속

올해 1월 암태지 평균경락가격이 3천392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9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김경남)는 2005년 1월중 등급판정결과 암태지 평균경락가는 3천392원으로 전월대비 4.0% 상승, 전년 대비 33.4%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암태지의 등급별 경락가격은 A등급의 경우 4천106원으로 전월대비 2.5%, 전년동기대비 31.2% 크게 상승했으며, B등급은 3천897원으로 전월대비 3.6%, 전년동기대비 35.0% 상승했다. 아울러 C등급은 3천743원, D등급은 3천528원을 기록해 크게 상승하면서 3천원

대를 크게 웃돌았다.

2004년 돈열 항체 양성률 평균 95.7%

- 12월 95.6%...지난해 95% 이상 꾸준히 지속

2004년 돈열 항체 양성률이 8월과 11월을 제외하고 꾸준히 95% 이상을 유지하면서, 평균 95.7%를 기록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2월 돈열 항원·항체 검사결과 올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돈열 항체 양성률은 평균 95.7%, 12월 95.6%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12월에는 비육돈 농가 820호, 1만2천149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항체검사 결과 양성률은 95.2%에 달했으며, 번식돈은 농가 308호, 3천416두를 검사한 결과 양성률이 9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돈은 2농가, 25두를 검사해 100% 항성률을 나타냈다.

한편 2004년 항체 양성률은 1월 95.0%, 2월 95.9%, 3월 95.7%, 4월 96.0%, 5월 96.2%, 6월 96.5%, 7월 95.3%, 8월 94.6%, 9월 97.1%, 10월 95.4%, 11월 94.8%로 나타났다.

돈사화재 '전기합선' 이 주 원인

농촌진흥청(청장 손정수)은 지난

1월 15일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한파로 인해 축사 화재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전기 안전점검으로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농진청은 조사결과 축사 화재가 7월말부터 18건이 발생해 농가당 평균 7천7백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했으며, 주로 양돈장(58%)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저녁~새벽사이 에 63%가 발생하고, 발화 원인은 전기합선, 축사용접 부주의, 담뱃불, 작업자 부주의 등으로 나타나 전기합선이 화인의 75%에 이른다고 밝혔다.

따라서 농진청에서는 축사의 전기로 인한 화재는 전기용량 초과사용, 전선 및 전열기구 정비 부실, 부주의한 사용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했다.

돈사 화재로 돼지 500여두 소사

지난 1월 22일 오후 5시경 경남 창원시 동읍 석산리 정모(54)씨의 K농장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돼지 540여두가 소사했다. 이날 화재로 80평 규모의 돈사 1채가 불에 타고, 모두 6천80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양돈**

본지 캠페인

3월은 양돈자조금 100% 납부의 달